

News

대기업 살릴 '40兆 인공호흡기'...은성수 "자금 지원 失期 없어야"

한국경제

심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내규, 운용 방안, 채권 발행 한도 등을 검토...기안기금의 대원칙은 '국민 경제와 고용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은 위원장,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자동차부품업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연합뉴스

앞서 3월 1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1.25%→0.75%)'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 그만큼 한은이 최근 수출 급감,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미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뜻

올해 은행채 순발행 30조 육박...코로나뺏 수요 증대

파이낸셜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채는 총 28조9,407억원이 순발행...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들의 자금조달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주요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의 은행채 순발행액이 1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 5조9,899억원, KB국민은행 1조9,200억원 등

일부 조건부 대출 취급 중단 신한銀, 전세자금대출 조인다

파이낸셜뉴스

앞서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하려다 비판 여론에 이를 보류... 대신 일부 조건부 대출 취급 중단해 전세자금대출 조이기 지난 15일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대출 취급을 중단...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취급 요건을 강화

메리츠 전략 도입한 한화생명...설계사 문턱 확 낮췄다

머니투데이

한화생명, 보험 신계약 확대를 위해 신인 설계사 문턱을 확 낮 ...올해 들어 신인 설계사 도입 목표치를 환산실적 기준 50만원에서 월초 실적 기준 5만원으로 바뀌 단기간에 실적과 매출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반응도

보험사 역마진 부담 '역대 최대'...6조 넘어설 듯

서울경제

두 달 만에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인하되면서 보험사들의 역마진 부담이 한층 커져...올해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은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 관계자, "매 분기 성적표를 내놓아야 하는 상장 보험회사 입장에서 당장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권매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21대 국회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기대감 ↑

뉴스토마토

증권업계 출신 후보자들이 잇달아 당선되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폐지 등 증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 자본시장에 친화적인 법안 발의 기대감이 커진데다 여야 모두 금융세제 개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며 금융부문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

3,000억 부채투자전문펀드 조성

디지털타임스

부채투자전문펀드(PDF·private debt fund)란 기업구조혁신펀드 중에서 대출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하는 펀드 PDF는 기업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자금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수단으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